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모-아 상호작용과 관련변인 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Toddler Interaction and Its Related Variables

정미라·이방실*·권정윤·박수경·강은영

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가천대학교 세살마을연구원,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Chung Mira·Yee Bangsil·Kwon Jeongyoon·Park Sukyung·Kang Eunyoung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achon University

Sesalmaul Research Center, Gachon University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ungshin University

Dep.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Program in Doctor Gachon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aims at exam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toddler interaction and its related variables. A total of 49 toddlers and their mothers were participated and observed in the child lab during free pla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mother-toddler interaction, 'involvement' was frequently used in comparison with the 'rejection' was the hardly used in their interaction. Second, the mothers' sensitivity, parenting stress, and the mother-toddler interaction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the mothers' job status or gender of toddlers. However, their parenting stress was lower in working mothers or mothers who have girls. Third, mother-toddler interaction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mothers' sensitivity, parenting stress, parenting style, and the temperament of toddlers. On the basis of this results, the implication related to the variables influencing mother-toddler interaction was discussed.

Keywords: toddler, mother-toddler interaction, sensitivity of maternal behavior, parenting stress, temperament

I. 서론

영아에게 있어 주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는 최초의 사회적·심리적 환경이자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Lim, 2011; Park, 2005) 출생 전부터 맺어진 어머니와 태아의 관계는 출산 후 상호작용에까지 이어지며(Kang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30).

* Corresponding Author: Yee, Bangsil

Tel: 031-750-8635, Fax: 031-750-8632

Email: bsyee07@naver.com

& Chung, 2012) 어머니와 영아는 상호작용을 통해 감각 및 정서를 교환하고 조절하는 경험을 한다(Kim, 2000). 모-아 상호작용은 영아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인데(Bornstein, 200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되어 나타나므로 영아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여겨져 왔다.

모-아 상호작용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영유아 발달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거나(Kim, 1999; Park, 2005), 아니면 양육특성과 모-아 상호작용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Park & Koh, 2003)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어머니의 민감한 양육이 영아의 안정적인 애착형성이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어머니의 강하고 거친 양육, 부정적이고 강압적인 통제는 아동의 외현적 문제행동과 연관된다고 밝혀졌다(Brenner & Fox, 1998; O'Learly, Smith & Reid, 1999). 이와 같이 모-아 상호작용은 영아의 발달이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영아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주목받아 왔다. 최근에는 영아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성인과 영아의 상호작용 증진을 돕는 프로그램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Chung, Kwon, Park & Yee, 2012; Chung, Yee & Moon, 2012).

모-아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녀의 신호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그 요구와 필요에 맞추어 상호작용하는 양육 민감성과 양육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어머니 민감성은 동일한 어머니의 반응행동일지라도 영아의 행동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만의 특성이라기보다 모-아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상황적 맥락 안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개념이다(Van den Boom, 1994). 민감한 어머니일수록 영아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영아와 질적, 양적으로 더 나은 상호작용을 하게 되지만(Lee, 2006), 정서적 무시, 방임, 신체적 학대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태도(Giovannoni, 1989)은 영아와 부모 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어진다.

모-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학자들은 부모의 심리적 요인 중 하나인 양육스트레스를 강조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부모의 인지적 측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자들은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 형성에 중요한 변인임을 강조하고 있다(Abidin, 1992; Luster & Okagaki, 1993). 같은 입장에서 Snyder(1991)도 양육스

트레스로 인해 어머니는 자녀의 공격성에 처벌적인 반응을 하게 되며 이는 다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Crnic와 Greenberg(1990)도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민감성이 낮고 통제적이며, 자녀의 반항적 행동을 증가시킨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결국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Crnic & Acevedo, 1995; Shin 1997) 모-아 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다시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순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Kang, 2009).

영아의 기질 또한 모-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아의 기질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가 어머니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성격적으로 부정적 경향이 많은 어머니는 영아를 더 까다롭게 지각한다고 보고되고 있다(Levitt, Wever, & Clark, 1986). Choi(1990)는 영아를 개월별로 나누어 기질을 조사한 후 모-아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는데, 6개월, 13개월 된 영아의 유순하고 활발한 기질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3세 때의 까다로운 기질은 어머니의 지지적 상호작용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Han(2005)에서도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를 둔 어머니는 민감한 상호작용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호작용의 양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와 어머니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정서는 영아가 순한 기질일 때 더 많이 나타났으며, 간섭하는 행동은 느린 기질이나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에게 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모-아 간의 상호작용이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는 연구로 자녀의 성별,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여아의 어머니들은 남아의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와 상호작용 시 통제나 간섭하는 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07). 어머니의 취업 유무와 관련하여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취업모의 경우 일과 가족 간의 다중 역할을 해야 하므로 전업모에 비해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Chang, 1985). 그러나 전업모도 가사와 자녀양육의 이중역할 부담감 때문에 취업모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지각한다는 연구 결과(Park, 1994)도 있으며 취업여부와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Kwon, Chung, Park,

2012).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양육민감성을 떨어뜨려 자녀와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보고는 있으나(Clarke-Stewart, 1988), 민감하고 반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양육자에 의해 돌봄이 이루어진다면, 어머니의 취업이 어머니-자녀 간 긍정적인 정서적 관계를 방해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Van IJendoorn, 1995; Yang, 2000). 이처럼 자녀의 성별이나 어머니의 취업유무는 영아기 양육행동 및 상호작용을 연구하는데 자주 언급되는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변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모-아 상호작용 및 양육변인과 관련하여 이들 변인 간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지금까지 모-아 상호작용 연구는 주로 모-아 상호작용 관련 질문지나 체크리스트를 통한 조사 분석방법이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관찰방법을 통한 모-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주로(Kim & Kwak, 2004; Kim, Seong, & Hyeon, 2000; Lee, 2000)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녀가 사용하는 조절 전략들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Cohn & Tronick, 1987). 따라서 이들 연구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놀이상황을 다루지 못하고 단편적인 행동만을 관찰 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 때문에 모-아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은 모-아간의 전형적인 상호작용 패턴을 얻기 위해서는 자유놀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Isabella, 1998). 이제까지 이루어진 영아와 양육자의 상호작용 행동 연구가 주로 돌보기와 같은 양육상황에서 이루어져 왔다면 Miller(2000)는 자유놀이와 같은 비구조화된 놀이상황에서부터 구조화된 놀이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연구하려 하였다. 특히 모-아 상호작용 빈도수보다는 행동의 질에 초점을 두면서 상호작용을 평정할 수 있는 관찰도구를 제안하고 있어(Miller, 2000) 모-아 상호작용과 관련변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iller(2000)의 상호작용 관찰도구를 활용하여 모-아의 상호작용과 관련 양육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모-아 상호작용이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Landry, Smith, Swank, & Miller-Loncar, 2000)를 고려할 때 걸음마기 영아와 어머니 상호작용 행동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걸음마기 영아를 둔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 대한 부모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모-아 상호작용 및 관련 변인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모-아 상호작용과 양육 민감성,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취업유무 및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모-아 상호작용과 양육 민감성,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 영아기질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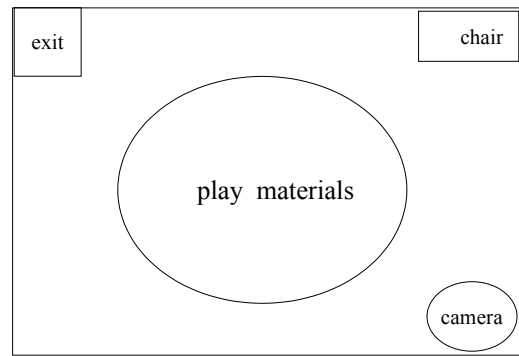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만 18개월 전후 영아 49명과 그의 어머니이다. 연구대상 선정은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및 동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선정된 연구대상 영아는 남아 26명, 여아 23명으로 평균월령은 18개월이었으며, 이들 어머니는 35세미만이 29명, 35세에서 40세 미만이 15명, 40세 이상이 5명으로 취업모 25명, 전업주부는 24명이었다. 이들의 가구소득은 월 평균 300만원 이상에서 4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영아의 성별에 따른 월령 및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 <Table 1>과 같다.

2. 연구도구

1) 모-아 상호작용

어머니와 영아간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Miller(2000)의 어머니와 영아 행동관찰도구를 토대로 Han과 Lee(2005)가 수정 개발한 모-아 상호작용 평정척도 중 어머니 행동의 평정 코드를 사용하였다. 모-아 상호작용 분석을 하기 위한 구체적 평정코드는 다음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모-아 상호작용을 관찰하기 위하여 준비된 관찰실에서 월령에 맞는 놀잇감 중 조작 놀잇감과 블록을 관찰실에 제공 한 후 영아와 어머니가 놀이하는 상황을 녹화하였다. 녹화가 완료 된 후 놀이 동영상을 보며 15초 관찰기록 단위로 모-아 상호작용 하위행동의 빈도와 강도를 표시하였다. 모든 모-아 상호작용 행동은 0(목표행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에서 3(행동이 빈번하고 강하게 나타남)까지의 범위를 이루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 1] Observation room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49)

		<i>n</i>	<i>M</i>	<i>SD</i>
Gender			(months)	
Toddler	Male	26	18.30	1.31
	Female	23	18.17	.98
	Total	49	18.24	1.16
Variable		<i>n</i>		%
Mother	Age	25 ~ 35	29	59.2
		35 ~ 40	15	30.6
		40 ~ 50	5	10.2
	Maternal job status	Yes	25	51.0
		No	24	49.0
	Income (won)	< 3,000,000	13	26.5
		3,000,00 ~ 4,000,000	20	40.8
> 4,000,000		16	32.6	
Total		49		100.0

〈Table 2〉 Miller's mother-toddler interaction code descriptions

Mother codes	Definition
Sensitivity	Extent to which mothers are infant centered
Positive affect	Frequency and intensity of mothers' positive emotion displays during the segment
Involvement	Extent to which mother actively attempts to engage with the infant during the play
Rejection	Extent to which mothers reject infant bids, insult the infant, tease, imitate cries, and make negative comments
Intrusiveness	Extent to which mothers follow own agenda despite the infant's signals
Resigned/Anxious	Extent to which mothers show resigned, helpless, or anxious behavior

Note. All mother behaviors were rated on 4-point scales, 0(absent) 1(mild or infrequent displays) 2(mixed or moderate displays) 3(intense or predominant displays).

모-아 상호작용은 2명의 평가자들이 어머니 행동에 초점을 두고 반복 관찰 한 후 독립적으로 평정하였다. 전체 49쌍 중 5쌍에 대하여 2명의 평가자가 각각 평정한 뒤 평가자 간에 신뢰도를 보기 위하여 Cohen의 Kappa지수를 산출하였다. 어머니 행동의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60~.89사이로 나타났다.

2) 어머니 양육 민감성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양육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Pederson과 Morgan(1995)이 개발한 민감성행동 Q-set (Maternal Behavior Q-set : MBQ)을 Koo와 Lee(1998)가 번안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행동을 묘사한 90개의 문항을 관찰자 또는 어머니가 직접 분류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본인의 양육방식,

어머니의 정서표현, 자녀에 대한 주의, 상호작용방식, 의사소통 기술 등에 대한 경향성에 대한 문항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어머니가 영아의 애착과 관련된 행동이 적힌 90장의 카드를 읽고 자신의 자녀와 가장 일치하는 행동의 카드는 9점을, 가장 일치하지 않는 행동의 카드는 1점을 주는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민감성 점수는 어머니가 분류한 점수와 준거점수와의 상관을 통해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민감성 측정을 위해 Koo와 Lee(1998)에 의해 산출된 국내준거점수를 활용하였다. Pederson과 Morgan(1995)의 미국준거 점수와 국내준거점수 간의 상관은 .88(p<.01)이었다.

3)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Abidin (1990)의 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를

<Table 3> Sub-area definition and reliability of parenting stress

Sub-area	Definition	Number	Reliability
Parents' perceived stress	Stress related to the children's dysfunctional interactions	8	.87
Parental role stress	Stress related to the parents' dysfunctional parenting and personal difficulty for parenting	10	.86
Difficult child related stress	Stress related to the children's difficult temperament or problematic behaviors	7	.85

<Table 4> Sub-area definition and reliability of maternal behavior

Sub-area	Definition	Number	Reliability
Direction / Control	The attitude of controlling children's behavior by caregivers' standards regardless children's interest or abilities	7	.78
Overprotection	The attitude of encouraging children to depend on the caregivers discouraging children's independency	6	.67
Rejection / Hostility	The attitude of showing rejection, dissatisfaction, or criticism toward children	6	.75
Appropriateness of response	The attitude of appropriate responsiveness to the children as the caregivers perceive children's signals.	5	.79

요인 분석하여 재구성한 Ahn(2000)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영역별 문항 수는 어머니가 자각한 스트레스 8문항, 부모역할 스트레스 10문항, 까다로운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 7문항이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85이며 하위영역별 개념과 문항별 신뢰도는 <Table 3>과 같다.

4) 어머니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Koh(2003)의 양육태도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제, 과보호, 거부, 반응성 등 4가지 하위영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Table 4>와 같다.

5) 영아 기질

본 연구에서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Saslow (1993)의 영아기질 검사(Toddler Temperament Scale: TTS)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수정한 Baek(1997)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TTS는 총 5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별 평정은 4점 척도이다. 기질의 하위요소는 활동성, 접근회피, 적응성, 반응강도, 기분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별 의미 및 신뢰도는 아래 <Table 5>와 같다.

3. 연구절차

1) 관찰자 훈련

모-아 상호작용을 관찰하기 위한 관찰자 훈련은 2011년 9월 4일부터 3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관찰자 2명은 모-아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관찰 절차와 녹화방법을 숙지하였고, 어머니의 상호작용 하위 행동범주에 대한 정의에 대해 토론하였다. 또한 모-아 상호작용 영상을 5건 관찰 분석하면서 항목에 대한 점수가 크게 불일치하거나 평정이 모호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 서로 협의하며 일치도 훈련을 하였다.

2) 예비조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 민감성, 양육태도, 영아기질 문항에 대한 이해도와 적용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S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영아와 어머니 각 10명에게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검사 도구의 문항내용 이해에 문제가 없었으며 모-아 상호작용의 놀이상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동영상분석에 사용되는 관찰도구에 대한 검사자간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5명의 영아를 대상으로 반복, 측정하였으며 불일치된 내용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쳤다. 검사자간 일치도는 .84로 나타났다.

3) 본 조사

본 조사는 2011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영아와 어머니가 S시에 위치한 발달검사실에 방문하여 진행되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

<Table 5> High score meaning and reliability of temperament

Sub-area	High Score Meaning	Number	Reliability
Activity	A lot of physical movements and active movement	10	.69
Approach-withdrawal	Avoidance and withdrawal when the infant faces to the new environment or stimulus	9	.80
Adaptability	Hard to adjust to new condition or circumstances	9	.66
Intensity	Strong reaction toward stimulus	10	.66
Mood	Showing negative mood and unpleasant feelings	13	.74

육민감성, 양육행동 및 영아의 기질을 측정된 후 모-아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영아와 어머니가 관찰실에서 놀이하는 것을 촬영하였다. 모-아 상호작용은 동영상의 처음 5분을 제외한 10분간의 동영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분량은 총 49명에 해당하는 490분(총 1,960회)이었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영아특성 및 어머니의 양육 민감성 및 스트레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어머니가 직접 응답할 수 있는 질문지식 도구를 제작하였으며, 각 도구에 응답한 결과를 점수로 계산하여 데이터화 하였다. 모-아 상호작용은 Samsung SCD-3081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후 PC를 이용하여 정지, 작동을 반복하며 관찰기록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량(평균, 표준편차, 빈도)을 구하였으며, 영아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모-아 상호작용 및 관련 변인의 일반적 경향

영아 특성에 따른 각 변인별 차이를 알아보기에 앞서 어머니의 양육 민감성,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 영아기질, 모-아 상호작용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Table 6>과 같다.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아 상호작용 중 ‘참여($M=67.91, SD=19.63$)’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은 ‘민감성($M=65.42, SD=25.67$)’과 ‘긍정적 정서($M=24.24, SD=1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아 상호작용 중 ‘간섭($M=7.67, SD=6.97$)’, ‘체념($M=3.08, SD=4.51$)’은 매우 적게 나타났으며 이중 가장 적게 나타난 것은 ‘거절($M=1.77, SD=3.70$)’이었다.

어머니의 ‘양육 민감성’ 평균은 .62($SD=.20$)였고,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 총점은 평균 50.04($SD=10.77$)이었다. 스트레스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어머니가 지각한 스트레스($M=17.69, SD=4.18$)’, ‘부모 역할 스트레스($M=16.31, SD=4.62$)’, ‘까다로운 자녀행동 스트레스($M=16.04, SD=3.94$)’가 각각 비슷한 정도로 나

<Table 6>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N = 49)

Variables		M	SD
Mother-toddler interaction	Sensitivity	65.42	25.67
	Positive affect	24.24	11.46
	Involvement	67.91	19.63
	Rejection	1.77	3.70
	Intrusiveness	7.67	6.97
	Anxious	3.08	4.51
Sensitivity of maternal behavior		.62	.20
Parenting stress	Parents' perceived stress	17.69	4.18
	Parental role stress	16.31	4.62
	Difficult child related stress	16.04	3.94
	Total	50.04	10.77
Maternal behaviors	Direction / Control	15.16	2.79
	Overprotection	15.00	2.61
	Rejection / Hostility	12.82	2.31
	Appropriateness of response	14.27	2.14
Toddler temperament	Activity	26.98	3.59
	Approach-withdrawal	22.49	4.28
	Adaptability	21.20	3.46
	Intensity	29.14	3.39
	Mood	28.35	4.48

타났다. 어머니 양육태도는 ‘통제($M=15.16, SD=2.79$)’와 ‘과보호($M=15.00, SD=2.61$)’가 비슷한 평균을 나타냈고 그 다음이 ‘적절한 반응($M=14.27, SD=2.14$)’, ‘거부($M=12.82, SD=2.31$)’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영아의 기질은 ‘반응강도($M=29.14, SD=3.39$)’가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으며 ‘기분($M=28.35, SD=4.48$)’, ‘활동성($M=26.98, SD=3.59$)’, ‘접근회피($M=22.49, SD=4.28$)’, ‘적응성($M=21.20, SD=3.46$)’ 순서로 나타났다.

2. 모-아 상호작용과 양육 민감성, 양육스트레스의 어머니 취업유무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모-아 상호작용과 어머니 양육민감성,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아 상호작용 및 어머니의 양육민감성,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취업유무 및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취업모($M=47.84$)가 전업주부($M=52.33$)보다 낮았으며, 자녀가 여아인 경우($M=47.57$)가 남아($M=52.82$)인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모-아 상호작용과 양육민감성,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 영아 기질 변인 간의 관계

모-아 상호작용과의 양육민감성,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 영아기질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아 상호작용은 양육민감성,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 영아기질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아 상호작용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상호작용의 민감성’은 ‘양육스트레스($r=.53, p<.01$)’, 영아의 ‘적응기질($r=.33, p<.05$)’, ‘기분기질($r=.42,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높거나 또는 영아가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잘 못하고 부정적인 기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모-아 상호작용에서 어머니가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행동하고 영아의 필요에 초점을 두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아 상호작용 중 ‘긍정적 정서’는 영아의 ‘접근회피 기질($r=.29, p<.05$)’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새로운 자극을 접하여 위축되고 회피하려는 정도가 많을수록 어머니가 상호작용에 있어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아 상호작용 중 ‘참여’는 어머니의 ‘양육민감성

<Table 7> T-test results by infants' characteristics

(N = 49)

Domain	Maternal job status	n	M	SD	t	Gender	n	M	SD	t
Sensitivity	Yes	25	66.12	26.20	.19	Male	26	64.38	27.44	.30
	No	24	64.70	25.65		Female	23	66.60	24.07	
Positive emotions	Yes	25	24.60	12.66	.22	Male	26	24.26	10.06	-.01
	No	24	23.87	10.33		Female	23	24.21	13.10	
Mother-toddler interaction	Yes	25	65.68	17.43	-.80	Male	26	70.38	23.74	-.96
	No	24	70.25	21.83		Female	23	65.13	13.61	
Rejection	Yes	25	1.40	2.64	-.71	Male	26	2.5	4.65	-1.53
	No	24	2.16	4.59		Female	23	.95	2.01	
Intrusiveness	Yes	25	6.36	6.65	-1.35	Male	26	6.73	6.12	-.99
	No	24	9.04	7.17		Female	23	8.73	7.82	
Anxious	Yes	25	1.88	2.24	-1.92	Male	26	2.73	4.92	.58
	No	24	4.33	5.84		Female	23	3.47	4.07	
Sensitivity of maternal behavior	Yes	25	.65	.16	1.14	Male	26	.64	.17	-.88
	No	24	.58	.22		Female	23	.59	.22	
Parenting stress	Yes	25	47.84	11.25	-1.48	Male	26	52.82	11.43	1.72
	No	24	52.33	9.96		Female	23	47.57	9.71	

($r=-.31, p<.01$)과 부적인 관계가 있고, ‘양육스트레스($r=.63, p<.01$)’, ‘거부적 양육행동($r=.39, p<.01$)’, 영아의 ‘기분기질($r=.42,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이 높을수록 모-아 상호작용에 있어 어머니가 소극적인 참여를 더 많이 하는 반면, 양육스트레스가 높거나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녀가 부정적인 기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모-아 상호작용에 있어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모-아 상호작용 중 ‘간섭’은 어머니의 ‘양육민감성($r=-.59, p<.01$)’, ‘반응적 양육행동($r=-.43, p<.01$)’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양육스트레스($r=.47, p<.01$)’, ‘통제적 양육태도($r=.49, p<.01$)’, ‘거부적 양육태도($r=.53, p<.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모-아 상호작용 중 ‘간섭’은 영아의 ‘활동성기질($r=.31, p<.05$)’ 및 ‘적응기질($r=.33, p<.05$)’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양육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반응적 양육행동을 갖고 있는 경우 상호작용에서 자녀의

신호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많고, 통제적이면서 거부적 양육태도를 갖고 있거나 자녀가 신체적 움직임이 많고 새로운 것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기질을 갖고 있는 경우 어머니는 자녀의 신호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아 상호작용 중 ‘체념’은 자녀의 ‘반응강도 기질($r=-.30, p<.05$)’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외부의 자극에 강렬히 반응하는 기질을 갖고 있는 경우 어머니가 상호작용하면서 체념하거나 무력감, 불안감을 표현하는 경향이 적은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모-아 상호작용과 양육관련변인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8) Pearson correlations for the mother-toddler interaction and its related variables

Variables	Mother-toddler interaction	Sensitivity	Positive emotions	Involvement	Rejection	Intrusiveness	Anxious
Sensitivity of maternal behavior		-.22	.04	-.31**	.10	-.59**	-.10
Parenting Stress	Parents' perceived stress	.38**	-.12	.49**	-.18	.36**	-.12
	Parental role stress	.47**	-.10	.58**	-.18	.38**	-.10
	Difficult child related stress	.49**	.15	.52**	-.33**	.45**	-.14
	Total	.53**	-.04	.63**	-.27	.47**	-.14
Maternal behaviors	Direction / Control	.08	-.09	.21	-.08	.49**	.13
	Overprotection	.27	-.05	.28	-.15	-.02	-.03
	Rejection / Hostility	.25	.21	.39**	-.16	.53**	-.00
	Appropriateness of response	-.14	.10	-.21	.05	-.43**	.04
Infant temperament	Activity	.16	.01	.26	-.08	.31*	.04
	Approach-withdrawal	.27	.29*	.11	.02	-.01	-.07
	Adaptability	.33*	.01	.25	-.04	.33*	.04
	Intensity	-.02	.04	.13	-.14	.09	-.30*
	Mood	.42**	.17	.42**	-.17	.17	-.06

* $p < .05$ ** $p < .01$

첫째, 모-아 상호작용 및 양육관련 변인의 일반적 경향에서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상호작용에 있어 '참여'를 가장 많이 하였고, 다음은 '민감성', '긍정적 정서' 순으로 나타났다. 모-아 상호작용 중 '간섭', '체념'은 매우 적게 나타났으며 이중 가장 적게 나타난 것은 '거절'이었다. 그런데 이런 결과는 Han과 Lee(2005)의 연구에서 12개월~18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모-아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자유놀이상황에서 '참여'와 '민감성'의 모-아 상호작용이 많이 나타났고, '거절'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를 놀이에 참여시키도록 적극적인 시도를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녀의도를 거부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적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지각한 스트레스', '부모역할 스트레스', '까다로운 자녀행동 스트레스' 등 하위영역이 각각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트레스 연구결과(Hong, 2002; Kang, 2009) 와도 유사하였다. 걸음마기 어머니 양육태도는 '통제'와 '과보호'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영아의 기질은 '반응강도'가 가장 높고 '적응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Kim(2009)의 연구에서는 양육태도는 '적절한 반응'이 가장 많았고 영아의 기질은 '활동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선행연구와의 이런 차이는 영아기 질이나 양육태도는 일반적인 경향보다는 본 연구대상의 특성이 더 많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민감성, 양육스트레스 및 상호작용이 어머니 취업유무 및 자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전업주부보다 취업모에게 더 낮은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여아인 경우가 남아인 경우보다 스트레스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어머니 변인이 자녀의 성별이나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Bornstein, 2002; Hong, 2002; Kang, 2009; Lee, 2006; Park, 2007; Shin, 1997)결과와 차이가 있다. 취업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민감성 및 스트레스 관련한 연구들(Park, 1994)은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심하여 양육민감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고한 연구들도(Kang, 1998; Pyeon, 2004)일반적으로 자녀가 남아인 경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여

부나 자녀의 성별이 부모의 양육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Van IJendoorn, 1995; Yang, 2000)들도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이번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이 성차가 비교적 덜 나타나는 영아라는 점과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양육민감성이나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없었던 결과는 전업주부도 취업모 못지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주장(Kwon, Chung & Park, 2012; Park, 1994)과 상통하는 것이다. 한편 취업모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발달과 육아에 대한 각종 정보의 증가 역시 취업모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일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본 연구결과는 걸음마기 영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의 양육관련 요인이 자녀의 성별이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기는 일반적 생각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모-아 상호작용과 양육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육민감성,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 자녀의 기질에 있어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참여' 행동은 어머니의 양육민감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이 높을수록 자녀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는 이 시기 영아는 스스로 직접 경험을 하면서 자율성을 발달시킨다(Erikson, 1963)는 특성을 알고 있는 어머니는 좀 더 자녀에게 탐색의 기회나 자발적인 행동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양육방식에 민감한 어머니는 영아기 자녀에게 더 많은 자율성과 주도성을 허용하기 위해 지켜보거나 따라하기, 지지하기 등과 같이 다소 소극적인 참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아의 부정적 기분성향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적극적인 '참여'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언어적으로 미숙한 영아가 부정적 기분을 많이 나타낼 때 어머니가 자녀의 기분을 살피고 맞추어주기 위해 높은 참여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참여' 행동 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간섭' 행동이 양육민감성의 모든 하위 영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인 것도 동일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이 높을수록 영아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영아의 신호를 무시한 채

어머니의 의도대로 상호작용하는 정도가 낮은 것은 ‘참여’의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모-아 상호작용에서 성인이 주도하기보다는 영아에게 자율성을 주고 곁에서 지원하는 소극적 참여가 민감한 상호작용임(Kim, 2000; Lee, 2000)을 입증할 수 있다.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모-아 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모-아 상호작용 중 ‘민감성’, ‘참여’, ‘간섭’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아 상호작용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민감성’, ‘참여’, ‘간섭’행동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영역인 ‘어머니 자각 스트레스’, ‘부모역할 스트레스’, ‘까다로운 자녀행동 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상호작용에 있어 어머니가 영아의 요구에 민감하고 영아에게 초점을 두고 자녀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려는 시도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들이 자녀와 상호작용함에 있어 더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결과는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연구들(Han & Lee, 2010; Kang, 2006)과 다소 상반된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가 과민한 반응성을 보이며, 완벽추구의 기질을 갖고 있을 때 자녀와 민감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현대 부모들은 고단함 속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를 넘어 내 아이를 더 잘 키워야 한다는 교육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민감하지 못한 양육으로 속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Pyoon, 2004)들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어머니의 기질이나 교육수준을 매개로 한 연구 또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질적인 분석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자료수집이 임의의 실험실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들이 좀 더 적극적, 의식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걸음마기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은 어머니의 취업유무나 자녀의 성

별과는 차이가 없으므로 영아 및 어머니의 개인특성을 반영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육민감성 및 양육스트레스가 모-아 상호작용에 있어 관련된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양질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이들 변인의 개선을 돕는 다양한 부모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에 기초하여 향후에는 모-아 상호작용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 영아의 기질, 언어, 애착안정성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어머니의 기질, 반응성, 심리적 복지감, 양육태도 등과 같은 요인들을 추가하여 각 요인들 간의 매개효과를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제언해 본다.

주제어: 모-아 상호작용, 양육 민감성,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 영아기질

REFERENCES

-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for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Th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401-412
- Ahn, J. Y. (2000).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doctor dissertation, Ewha University, Seoul.
- Baek, K. S. (1997). *A study on children's adjustment to full-time daycare center*. Unpublished doctor dissertation, Sookmyung University, Seoul.
- Bornstein, M. H. (2002). Handbook of parenting. In M. H. Bornstein(2nd Ed.). *Parenting Infants*(Vol. I, pp. 3-43).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renner, V., & Fox, R. A. (1998). Parental discipline and behavior problems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9*(2), 251-256.
- Chang, B. O. (1985). *A Study on the level of stress recognition of urban housewife and the method of*

- coping to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University, Seoul.
- Choi, Y. H. (1990). *Effects of Child Temperament on Mother-Child Interaction and on Child's Behavior Problems*. Unpublished doctor dissertation, Sookmyung University, Seoul.
- Chung, M. R., Kwon, J. Y., Park, S. K., & Yee, B. S. (2012). A toddler-parent program model based on brain development theory. *The Research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2(2), 261-282.
- Chung, M. R., Yee, B. S., & Moon, W. S. (2012). The research trends on infants program.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7(2), 127-149.
- Clarke-Stewart, K. A. (1988). The effects of infant day care reconsidere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58-97
- Cmic, K. A., & Acevedo, M. (1995).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pp. 277-297). Mahwah, NJ: Lawrence Erlbaum.
- Cm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 Cohn, J. F. & Tronick, E. Z. (1987). Mother-infant face-to-face interaction : The sequence of dyadic states at 3, 6, 9 month, *Developmental Psychology*, 23(1), 68-77.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Y: Norton.
- Giovannoni, J. (1989). Substantiated and unsubstantiated reports of child maltreatmen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1, 299-318.
- Han, J. H. (2005). *The study of infant's temperament, infant's attachment to their mothers,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across situation*. Unpublished doctor dissertation, Chonbuk University, Jeollabuk-do
- Han, J. H., & Lee, Y. H. (2005).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mother-infant interaction rating scale.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1, 291-312.
- Han, S. H., & Lee, Y. (2010). Emotional availability of working mothers and their 24~48 month-olds in child care centers. *Korean Association of Childcare & Education*, 6(1), 23~45.
- Hong, H. R.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daily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 Isabella, R. A. (1998). Origins of attachment: The role of context, duration, frequency of observation, and infant age in measuring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5(4), 538-554.
- Kang, E. Y. (2009).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fostering stress and infant's social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won University, Gyeonggi-do.
- Kang, H. G. (1998). *Dual-career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doctor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 Kang, O. S. (2006).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ttachment type, parenting stress and young children's daily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yeongsang-do.
- Kang, S. K., & Chung, M. R.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pregnant woman's stress, temperament and maternal-fetal attachment. *The Journal of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21(2). 213-223.
- Kim, G. J. (1999). The toddler-mother interaction types and toddler language development. *Research & Review*, 1, 411-500.
- Kim, H. J. (2009). *Influence of ecological factor of working mothers toward the stress of childc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Seoul.
- Kim, J. M. (2000).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promoting program for parent-child responsive interaction*. Unpublished doctor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Kim, J. M., Seong, O. R., & Hyeon, M. H. (2000). Brief report : The validity study of parent-child interaction rating scales(MBRS & CBR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4), 895-904.
- Kim, M. H., & Kwak, K. J. (2004). Responsiveness and initiative through infant-mother interaction in the

- social toy play.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7(2), 19-35.
- Koh, E. J. (2003). *The effect of day care, child's characteristics and maternal behavior on child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 Koo, M. H., & Lee, Y. H. (199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riterion scores for the maternal behavior Q-set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11), 129-139.
- Kwon, J. Y., & Chung, M. R., & Park, S. K. (2012). Variables related to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toddl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6(3), 143-160.
- Landry, S. H., Smith, K. E., Swank, P. R., & Miller-Loncar, C. L. (2000). Early maternal and child influences on children's later independent cognitive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1(2), 358-375
- Lee, H. M. (2006). *The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style and sensitivity on infant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 Lee, M. R. (2000). *Mother-infant interactions in social games*. Unpublished doctor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S. E. (2006). *Employed mothers' work-family conflict and family-supportive organizational cultur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vitt, M., Weber, R., & Clark, C. (1986). Social network relationships as sources of maternal support and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2(3), 310-316.
- Lim, M. H. (2011).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toddler interaction program and toddler development. *The Korean Society for Study of Child Education and Care*, 11(2), 67-94.
- Luster, T., & Okagaki, L. (1993). Multiple influence on parenting: Ecological & life-course perspectives. In T. Luster, & L. Okagaki(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pp. 227-250). Hillsdale, NJ: Erlbaum.
- Miller, A. L. (2000). *Mother-infant interaction across situations : Assessing contextual effects on behavior and predicting toddlers socio-emotional outcom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O'Learly, S. G., Smith, A. M., & Reid, M. J. (1999). A longitudinal study of mothers' overreactive discipline and toddlers' externalizing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7, 331-341.
- Park, H. M. (1994). *Study on parental stress based on the parenting of you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 Park, J. A. (2007). *Moderating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of preschoolers with anxiety disorders and their dysfunctional emotion regulation*. Unpublished doctor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Park, S. Y. (2005). Mother-infant interaction styles associated with infant development.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6(5), 15-30.
- Park, S. Y., & Koh, E. J. (2003). Infant day-care and family factors on maternal behavior.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7), 91-106.
- Park, Y. J. (2007). *The effect of parents' daily hassles for children's daily stress and children's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 Kyun Kwan University, Seoul.
- Pederson, D. R., & Morgan, G. (1995). A categorical description of infant-mother relationships in the home and its relation to Q-sort measure of infant-mother interaction. *Monographs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2), 111-132.
- Pyeon, E. S. (2004). *The mother's role of recognition and the parenting stress of working mothers having children from infants to preschool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 Saslow, E. R. (1993). *Temperament and day care: An examination of differences in expression across setting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mple, Philadelphia, USA.
- Shin, S. J. (1997). *Effects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efficacy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 Unpublished doctor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Snyder, J. (1991). Discipline as a mediator of the impact maternal stress and mood on child conduct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 263-276.
- Van den Boom, D. C. (1994). The influence of temperament and mothering on attachment and exploration: An experimental manipulation of sensitivity responsiveness among lower-class mother with irritable infants. *Child Development*, 65, 1457-1477.
- Van IJzendoorn, M. H. (1995). Breaking the intergenerational cycle of insecure attachment: A review of the effect of attachment-based interventions on maternal sensitivity and infant securit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36(2), 225-248.
- Yang, Y. S. (2000). *The effects of infant child care on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and emotion regulation*. Unpublished doctor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접수일 : 2012. 06. 07.

수정완료일 : 2012. 06. 26.

게재확정일 : 2012. 06. 28.